



요한복음 1-11장의 본문 비평

송영목 교수(Ph.D., 신약학, 고신대학교)

들어가면서

이 글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본문 비평을 통한 사본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GNT 5판에 근거하여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요 1-12장) 가운데 실제로 7 표적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1-11장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사본들의 통일성이 큰 본문 비평 등급 {A}와 {B}는 제외하고, {C}와 {D}에 해당하는 20구절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1:19, 21, 28; 2:12, 24; 4:1, 11; 5:2, 17; 6:23, 36, 52; 7:8, 10; 8:44; 9:4; 10:8, 16, 29, 39). 편의상 본문 비평을 위해서 크게 두 구분 즉 비평 사본과 다수 사본으로 분류하여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한글 번역본 2개를 비교하고, 적절한 번역을 제안할 것이다. 요한복음 사본의 신학적 경향은 고등 기독교론, 고등 성부론,¹ 그

1. 성자와 달리 성부는 성육신으로써 낮아지신 경우가 없기에 하등 성부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서 성부께서 높임을 받으신 경우를 고등 성부론이라 부를 수 있다.

리고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강조하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²

1. 본문 비평과 번역 제안

1) 요한복음 1:19 {C}

B: πρὸς αὐτὸν³

p^{66, 75} ✕ 다수 사본: 생략

『개역개정』: 요한에게

『바른성경』: 요한에게(작은 글씨로 표기함)

번역 제안: 생략

사본상 전치사구(πρὸς αὐτὸν)를 생략한 둘째 이문이 지지를 더 받는다. 대부분 사본들이 전치사구를 생략한 이유는 19절c에 αὐτὸν이 다시 등장하므로 잉여적 표현으로 간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1차 독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축출된(요 9:22) 에베소의 요한 공동체로 보인다.⁵ 따라서 1:19와 전후 문맥을 통해서(특히 1:20-21, 27), 사도

2. 요한복음 13-21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의 본문 비평은 송영목, 『간본문적 신약읽기』(서울: CLC, 2017), 88-137을 참고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본의 신학적 경향은 송영목, 『다차원적 신약읽기』(서울: CLC, 2018), 181-212를 참고하라. 그리고 필자의 다음 논문들도 참고하라: “마가복음의 D(05)의 신학적 경향,” 『교회와 문화』 40 (2018), 135-65; “누가복음의 D(05)의 신학적 경향,” 『장신논단』 50/1 (2018), 65-95; “사도행전의 D(05)의 신학적 경향,” 『신학논단』 87 (2017), 181-207; “베드로전서 사본의 신학적 경향,” 『신약연구』 16/2 (2017), 100-132.

3. 이 글에서 헬라이어 첫 번째 이문은 UBS 5판의 본문에 표기된 것이다.

4. B. M.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165.

5. 요한 공동체에 관하여 J. A. du Rand, *Johannine Perspectives: Introduction to the Johannine*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선지자”이자(신 18:15)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권면한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세례 요한(요 1:6-8)이 담당한 신학적 기능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어(1:31),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1:35-37).⁶ 이것은 고등 기독교론에 해당하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부합한다(20:31).⁷

2) 요한복음 1:21 {C}

p^{66, 75}: τί οὖν; σὺ Ἡλίας εἶ;

다수 사본: τί οὖν; Ἡλίας εἶ σὺ;

℣: τί οὖν Ἡλίας εἶ;

B: σὺ οὖν τί; Ἡλίας εἶ;

『개역개정』: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바른성경』: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Writings-Part I (3rd Edition, Johannesburg: Orion, 1993), 69를 참고하라. 하지만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공동체에 관한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는 없다.

6. 요 1장에서 반복, 대조, 강조 등의 기법으로 세례 요한의 역사적 역할과 신학적 기능이 강조된다. 그 결과 주님의 제자들과 요한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다. D. G. van der Merwe, “The Significance of John the Baptist in John 1,” *Neotestamentica* 33/2 (1999), 267-68, 288.
7. 참고로 지난 300년간의 본문 비평에 대한 일반적으로 수용된 원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현존하지 않는 표준적인 원본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사본을 만든 교회의 다양성과 유동성을 탐구하는 것을 제안한 경우는 남아공 UNISAS의 J. E. Botha,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s Dead!: Long live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HTS Teologiese Studies* 63/2 (2007), 561-73을 보라. 하지만 사본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본을 충분히 보존하셨으므로, 원본 추적 작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 참고.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2), 166-67.

번역 제안: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네 이문들의 사본상 무게는 대등하다. \aleph 의 표현이 가장 단순하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런데 의문대명사 중성 단수 주격 $\tau\acute{\iota}$ 의 성(性)을 반영한다면, “그러면 무엇인가?”(What then?)이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누구인가?’ 대신 ‘무엇’이라고 질문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어떠함 곧 정체성을 알기 원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는데(요 1:8),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1:31, 33),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고하지 않는다. 또 그는 엘리야(말 3:1-4; 마 3:4; 11:14; 막 9:13; 눅 1:17 비교)나 바로 “그 종말론적 선지자”도 아니며(요 1:21, 25, 신 18:15-19 참고),⁸ 그의 순교도 언급되지 않는다(막 6:14-29과 비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마 5:14 비교). 따라서 요한복음은 독자들을 ‘작은 그리스도들’보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믿도록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작은 세례 요한들’이 될 것을 권면하는 듯하다.⁹ 따라서 이 경우는 고등 기독교론에 해당한다.

3) 요한복음 1:28 {C}

p^{66, 75} \aleph B 다수 사본 일부: ἐν Βηθανίᾳ ἐγένετο

다수 사본 일부: ἐν Βηθαβαρᾷ ἐγένετο

8. 세례 요한은 자신이 새 엘리야임을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가 놀라운 방식으로 세상에 다시 올거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논박하기 위해서 부인한다. A. J. Köstenberger, 『요한복음』 (John),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99.

9. N. C. Theiss, “John 1:6-8, 19-28,” *Interpretation* 50/4 (1996): 402-405에서 요약 인용함.

『개역개정』: 베다니에서 일어난

『바른성경』: 베다니에서 일어난

번역 제안: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본상 첫 번째 이문이 앞도적인 지지를 받는다. 대부분의 사본들이 지지하는 ‘베다니’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순종의 집’이라는 뜻의 장소이며, 두 번째 이문의 ‘베다바라’는 ‘준비의 집’이라는 의미이다. ‘베다바라’는 세레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기에 후대에 변경된 지명으로 보인다.¹⁰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레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라는 성부의 명령에 순종했다(1:33). 따라서 이 경우는 고등 성부론에 해당한다.

4) 요한복음 2:12 {C}

다수 사본: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οἱ ἀδελφοὶ 11 αὐτοῦ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p^{66, 75} B: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οἱ ἀδελφοὶ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ⲛ: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개역개정』: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바른성경』: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신의 제자들과

번역 제안: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신의 제자와 함께

사본상 둘째 이문이 지지를 더 받으므로, 둘째 αὐτοῦ는 생략하여 번역하는 게 좋다. 가나 혼인 잔치(요 2:1-11)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

10.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66. 참고로 장소 이름은 내러티브의 장면 전환을 알리는 동시에, 내러티브의 역사성도 확보한다. E. W. Klink III, *Joh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6), 132.

11. ‘형제’ 안에 예수님의 ‘누이들’도 포함된다(마 13:55-56; 막 6:3). Klink, *John*, 178.

던 역할은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진다(19:15-37).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처형 장소에 있다고 밝힌다(19:25-26).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와 골고다의 신 포도주(2:9; 19:29), 물(2:7; 19:34),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때(2:4)가 병행을 이룬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의 목격자인 마리아는 나중에 에베소의 요한 공동체에 소속될 뿐 아니라(19:27), 신앙의 어머니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다.¹²

5) 요한복음 2:24 {C}

⌘ B: αὐτόν

p⁶⁶ 다수 사본: ἐαυτὸν

『개역개정』: 그의 몸을

『바른성경』: 자신을

번역 제안: 자신을

사본상 첫째 이문이 지지를 약간 더 받는다. 3인칭 남성 단수 대격 재귀 대명사(ἐαυτὸν)로 표기하는 둘째 이문은 의미를 더 분명하게 다듬기에 문법과 문맥에 자연스럽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즉 그 분의 이름)을 믿었다(2:23, 1:12 참고). 주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이시라는 정체성을 증거 하기 때문이다(5:36). 주님의 제자들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2:11; 11:14-15). 하지만 요한복음 2:24를 뒤따르는 니고데모(3:1 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불신앙으로 일관한 경우는 더 있다(6:60-71;

12. J. A. Grassi, "The Role of Jesus' Mother in John's Gospel: A Reappraisal," *CBQ* 48/1 (1986), 69, 79. 하지만 로마 가톨릭 학자인 Grassi는 요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연결하여 마리아가 천상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 잘못 주장한다.

7:1-9; 12:36-43).¹³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주님의 표적과 말씀을 믿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처형 때에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바로 이 이유로 주님은 (신앙의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¹⁴

6) 요한복음 4:1 {C}

℣: Ἰησοῦς

p^{66, 75} B 다수 사본: Κύριος

『개역개정』: 예수께서

『바른성경』: 예수께서

번역 제안: 주님께서

사본상 둘째 이문이 지지를 받는다(요 6:23 참고). 1절 d와 2절에 ‘예수님’이 등장하기에,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본에 ‘주님’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¹⁵

7) 요한복음 4:11 {C}

p⁶⁶ 다수 사본: αὐτῷ ἡ γυνή

℣: αὐτῷ ἐκείνη

p⁷⁵ B: αὐτῷ

『개역개정』: 여자가

13. Köstenberger, 『요한복음』, 168-69.

14. D. Hunn, “The Believers Jesus doubted: John 2:23-25,” *Trinity Journal* 25 (2004) 17, 24-25. 참
고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신앙을 “신앙의 주관성”이라 부른 경우는 Klink, *John*, 184를 보라.

15.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0.

『바른성경』: 그 여자가

번역 제안: 그에게

사본상 가장 짧은 셋째 이문인 “그에게”(αὐτῷ)가 지지를 더 받는다. 후대에 주어(ἡ γυνή)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¹⁶

8) 요한복음 5:2 {C}

⌘ 33: Βηθζαθα

p⁷⁵ B: Βηθσαιδα

다수 사본: Βηθεσδα

『개역개정』: 베데스다라

『바른성경』: 베데스다라

번역 제안: 베데스다라

사본상 둘째 이문 “벧세다”(Βηθσαιδα)가 지지를 더 받지만(유대고대사 8:28), 그것은 요한복음 1:44의 ‘벧세다’(Βηθσαιδα)에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참고. 요 12:21).¹⁷ 아람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이므로,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에 어울린다. ‘베데스다’를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상이

16.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1. 참고로 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가부장과 식민지 시대에 억압받던 여성(특히 일본군의 위안부와 해방 후 미군 기지촌의 여성들)의 관점에서 해석한 경우는 J. K. Kim, “A Korean Feminist Reading of John 4:1-42,” *Semeia* 78 (1997), 113을 참고하라. 밴더빌트대학교의 Kim이 본문 해석의 관심을 예수님의 정체성에 두지 않고, 대신 억압받던 여성의 형편에 두고 이념적으로 해석한 것은 문제다. 이것은 이념이 본문을 위에서 짓누른 주관적 해석이다.

17. “베데스다”는 쿨란문헌(3Q15)의 지지를 받는다.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3.

한 지명이 사본에 등장한다.¹⁸

9) 요한복음 5:17 {C}

p⁶⁶ 다수 사본: δὲ Ἰησοῦς

p⁷⁵ ✠ B: δὲ

『개역개정』: 예수께서

『바른성경』: 그러나 예수께서

번역 제안: 그러나 예수님께서(작은 글씨로)

사본상 둘째 이문이 지지를 더 받는다. 주어(Ἰησοῦς)는 의미를 분명히 만들기 위해서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번역에서 주어가 필요하므로 ‘예수님께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성경 번역은 학문적 문체를 굳이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고유 명사 ‘예수’ 다음에 ‘님’자를 넣어 경건한 문체로 번역해야 한다.

10) 요한복음 6:23 {C}

p⁷⁵ ✠ B 다수 사본: εὐχαριστήσαντος τοῦ κυρίου

D: 생략

『개역개정』: (주께서 축사하신 후)

『바른성경』: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번역 제안: 주께서 감사하신 후

18. “베데스다”를 지지하는 R. Thompson, “Healing at the Pool of Bethesda: A Challenge to Asclepiu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1 (2017), 67-68 참고.

사본상 분사의 속격 독립구문으로 표기된 첫째 이문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더 받는다. 참고로 요한복음 6:23에서 UBS 5판처럼, 『개역개정』의 괄호를 제거해도 무방하다.

11) 요한복음 6:36 {C}

p^{66, 75} B 다수 사본: $\mu\epsilon$

⌘: 생략

『개역개정』: 나를

『바른성경』: 나를

번역 제안: 나를

사본상 첫째 이문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1인칭 단수 대격 직접목적어 “나를”이 적어도 한 번 등장해야, 36절의 두 직설법 동사들인 ‘너희는 보아 왔다’와 ‘너희는 믿는다’의 의미가 분명해 진다.

12) 요한복음 6:52 {C}

p⁶⁶ B: $\alpha\upsilon\tau\omicron\upsilon$

p⁷⁵ ⌘ 다수 사본: 생략

『개역개정』: 자기

『바른성경』: 자기

번역 제안: 자신의(작은 글씨로)

사본상 둘째 이문이 지지를 약간 더 받는다. 하지만 “자신의”를 추가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 진다.

13) 요한복음 7:8 {C}

ⲕ: οὐκ ἀναβαίνω

p^{66, 75} B 다수 사본: οὐπω ἀναβαίνω

『개역개정』: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바른성경』: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번역 제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사본상 둘째 이문이 큰 지지를 받는다. 부사 ‘아직 않다’(οὐπω, not yet)가 8절과 10절의 자연스러운 문맥에 적합하다.¹⁹ 첫째 이문은 더 어려운 표현이기에 원본으로 선호되었지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7:6-8의 원본에 οὐπω가 3회나 등장하므로, 8절에서 οὐκ로 바꾸어 스타일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²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속임수가 아니라 신중하면서도 점진적으로 드러내신다.²¹

19.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8.

20. Contra 첫째 이문을 원본으로 보는 M. J. Harris, *John*,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5), 151. 첫째 이문을 원본으로 간주하는 이들은 (1)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사이의 ‘피상적인 대조’, (2) 예수님은 초막절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아버지께로 ‘올라갈’ (7:8) 때가 아님을 밝힘, (3) 예수님은 자기 형제의 제안을 거부하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님, (4) 예수님은 “이 명절”(7:8) 곧 초막절이 아닌 다른 명절인 유월절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심(R. Schnackenburg; contra 다른 명절을 내년 초막절로 보는 Klink, *John*, 356), (5)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명예를 얻는 뽐내는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올라가지 않으심, (6) ‘하얀 거짓말’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C. C. Caragounis, “Jesus, His Brothers and the Journey to the Feast (John 7:8-10),” *Svensk Exegetisk Årsbok* 63 (1998), 177-78, 184-86. F. J. Moloney,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238.

21. Köstenberger, 『요한복음』, 325.

14) 요한복음 7:10 {C}

p^{66, 75} B 다수 사본: ἀλλὰ ὥς

ⲛ: ἀλλ'

『개역개정』: 번역이 안 됨

『바른성경』: 그러나

번역 제안: 그러나

사본상 첫째 이문이 큰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문맥과 자연스런 의미는 ἐν κρυπτῷ(‘은밀히’)의 의미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ὥς(as)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²²

15) 요한복음 8:44 {C}

p⁶⁶ ⲛ B: οὐκ ἔστηκεν

p⁷⁵ 다수 사본: οὐχ ἔστηκεν

『개역개정』: 서지 못하고

『바른성경』: 서 있지 않았으니

번역 제안:

사본상 στήκω(‘확고히 서다’)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형(ἔστηκεν)으로 된 첫째 이문이 ἵστημι(‘서다’)의 현재 완료형(ἔστηκεν)으로 나타난 둘째 이문보다 지지를 더 받는다. 그리고 44절의 바로 앞에 현재 완료

22.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79. 참고로 요 7:53-8:11의 본문 비평은 송영목,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신약연구』 14/3 (2013), 517-46을 참고하라.

가 아니라 미완료 동사(ῥν)가 등장했기에 문맥상 자연스럽다.²³ 하나님의 자녀(그리고 요한 공동체)와 달리, 사탄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들(예: 회당, 모세의 제자, 요 9:29)은 본성적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²⁴

16) 요한복음 9:4 {C}

D 070: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p^{66, 75} ✠ B: ἡμᾶς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ἡμᾶς

다수 사본: Ἐμὲ δεῖ ἐργάζεσθαι τὰ ἔργα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개역개정』: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바른성경』: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번역 제안: 우리는 반드시²⁵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사본상 둘째 이문이 큰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첫째 이문은 다수의 학자들과 요한복음 안에서 내적간분문의 지지를 받는다(요 4:35; 5:24; 6:38; 7:17; 8:26).²⁶ 그러나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ἡμᾶς)를 2회 반복하여, 성부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역하도록 하신 것을 분명히 한다(참고. 14:12; 17:18; 20:21).²⁷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성부의 일을 수행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9:5), 이 표적은 영적 맹인들인 바리새인들의

23. Köstenberger, 『요한복음』, 844; Harris, *John*, 179;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86.

24. Moloney, *The Gospel of John*, 282; F. D. Bruner,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2), 542.

25. 사도 요한은 ‘반드시’(δεῖ) 즉 ‘신적필연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교회론을 위해서 종종 강조한다(3:14; 4:4; 10:16; 12:34).

26. Harris, *John*, 185.

27. Köstenberger, 『요한복음』, 391, 406. 참고로 ‘우리’를 증언에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참고. 요 3:11)라는 수사학적 장치로 보는 경우는 Klink, *John*, 438을 보라. 물론 성부의 보냄을 받은 어린 양 예수님과 그 분의 대속의 죽음은 제자들의 정체성이나 사역과 구분되어야 한다.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9:39-41).²⁸

17) 요한복음 10:8 {C}

p⁶⁶ B 다수 사본 일부: ἦλθον πρὸ ἐμοῦ

p^{45, 75} ⋈ 다수 사본 일부: ἦλθον

『개역개정』: 나보다 먼저 온

『바른성경』: 나보다 먼저 온

번역 제안: 나보다 먼저 온

사본상 첫째와 둘째 이문의 지지가 대등하다. 하지만 양 도둑들인 거짓 선생들을 비판하는 “나보다 먼저”(πρὸ ἐμοῦ)는 8절의 의미를 분명히 만든다. 참고로 요한은 10:7-18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 ‘나’(16회)와 ‘나의’/‘나를’(10회)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인 제자들(독자들) 사이의 친밀함을 강조한다.²⁹ 이 경우 기독교론적 교회론에 해당한다.

28. 요 9:4-5를 ‘빛과 어둠의 대조’가 이어지는 ‘표적의 책’(요 1-12)을 마무리하기 위한 후기의 편집적 추가로 본 경우는 K. Syreeni, “Working in the Daylight: John 9:4-5 and the Question of Johannine ‘Literary Archaeology,’” *Svensk Exegetisk Årsbok* 70 (2005), 279를 참고하라. 논문 제목의 ‘문학적 고고학’은 편집 층(redactional layers)을 가리키는데, 이런 편집비평은 요한복음의 영감성과 통일성을 허문다.

29. R. D. Kysar, “Johannine Metaphor-Meaning and Function: A Literary Case Study of John 10:1-8,” *Semeia* 53 (1991), 84-85, 93. 참고로 R. Bultmann, B. Lindars, R. E. Brown, C. H. Dodd, J. A. T. Robinson 등은 요 10:10-18을 최소 비유 두 개를 종합하여 편집했거나, 후기의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비유 자료를 활용했는지 알 수 없으며, 요한공동체를 편집자의 자리로 격상시킬 수 없다. 오늘날 복음서 연구자 가운데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삭제하고 복음서의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점증하고 있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18) 요한복음 10:16 {C}

p⁴⁵ B: γενήσονται

p⁶⁶ ⋈ 다수 사본: γενήσεται

『개역개정』: (그들도) 되어

『바른성경』: (그들도) 될 것이다

번역 제안: 그들도 될 것이다.

사본상 두 이문이 대등하게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미래 디포넌트 직설법 3인칭 단수형보다 복수형(γενήσονται)이 문맥에 더 자연스럽다.³⁰ 바로 앞에도 미래 3인칭 복수 동사 ‘그들이 들을 것이다’(ἀκούσουσιν)가 사용되었다.

19) 요한복음 10:29 {D}

B: ⋈(중성 단수 주격, what) δέδωκέν μοι πάντων μείζόν(중성 단수 주격)
ἐστίν

⋈: ♂(중성 단수 주격, what) δέδωκέν μοι πάντων μείζων(남성 단수 주격)
ἐστίν

p⁶⁶ 다수 사본: ♂(남성 단수 주격, who) δέδωκέν μοι μείζων(남성 단수 주
격) πάντων(중성 복수 대격) ἐστίν

『개역개정』: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바른성경』: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번역 제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이 경우 특이하게 비평 등급은 D이다. 사본상 셋째 이문이 지지를 약간

30. Köstenberger, 『요한복음』, 432.

더 받는데, 성부를 관계대명사 ‘남성’(ὅς)으로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문맥에 어울린다.³¹ 첫째 이문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교회가 만유보다 더 크고 값지다는 의미이다.³² 둘째 이문은 관계대명사와 형용사의 성(性)이 불일치하기에 매우 어색하다.

20) 요한복음 10:39 {C}

p⁶⁶ ✠ 다수 사본 일부: Ἐζήτουν οὖν

p⁷⁵ B 다수 사본 일부: Ἐζήτουν

『개역개정』: 접속사와 동사를 번역하지 않음

『바른성경』: 접속사와 동사를 번역하지 않음

번역 제안: 그러므로 그들이 찾았다

두 이문은 사본의 지지를 대등하게 받는다. 동일한 음으로 끝나는 동사 Ἐζήτουν과 혼동하여 필사자가 접속사(οὖν)를 실수로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하지만 ‘그러므로’는 요한이 선호하는 접속사다.

21) 통계 및 분석

위에서 본문 비평을 시도한 20개 구절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요한복음의 중요한 파피루스인 p⁶⁶은 약 200년경에 이집트에서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p⁷⁵는 p⁶⁶보다 약간 늦은 3세기 초에 필사되었다.

31. Köstenberger, 『요한복음』, 432. Contra Klink, *John*, 478; Harris, *John*, 202.

32. 첫째 이문을 원본으로 보는 Bruner는 요 10:29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설명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비교한다. Bruner, *The Gospel of John*, 639. 흥미롭게도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는 둘 다 에베소와 관련 있다.

33. Metzger,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191.

사본 (불)일치	구절	비고
p ^{66, 75} ⚡ B 다수 사본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1:28(1회)	1:28은 다수 사본 일부
p ^{66, 75} ⚡ B가 일치하는 경우	9:4(1회)	
p ^{66, 75} 가 일치하는 경우	1:19, 21, 28; 2:12; 4:1; 6:36; 7:8, 10; 9:4(9회)	
p ^{66, 75} 가 불일치하는 경우	2:24; 4:11; 5:2, 17; 6:23, 52; 8:44; 10:8, 16, 29, 39(11회)	
p ^{66, 75} ⚡가 일치하는 경우	1:28; 9:4(2회)	
p ^{66, 75} B가 일치하는 경우	1:28; 2:12; 6:36; 7:8, 10; 9:4(6회)	
p ^{66, 75} ⚡ B가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	10:29(1회)	
p ^{66, 75} 가 일치하고 ⚡ B와 불일치하는 경우	1:21; 2:24(2회)	
p ^{66, 75} 가 다수 사본과 일치하는 경우	1:19, 28; 4:1; 7:8, 10(5회)	1:28은 다수 사본 일부
p ^{66, 75} 가 다수 사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1:21; 2:12; 5:2; 6:23; 9:4(5회)	
⚡가 다수 사본과 일치하는 경우	1:19, 28; 6:52; 10:8, 16, 39(6회)	1:28; 10:8, 39는 다수 사본 일부
B가 다수 사본과 일치하는 경우	1:28; 4:1; 6:26; 7:8, 10; 10:8, 39(7회)	1:28; 10:8, 39는 다수 사본 일부
⚡가 다수 사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1:21; 2:24; 4:1, 11; 5:2, 17; 6:23, 36; 7:8, 10; 8:44; 9:4; 10:8, 29, 39(15회)	10:8, 39는 다수 사본 일부
B가 다수 사본과 불일치하는 경우	1:19, 21, 28; 2:12, 24; 4:11; 5:2, 17; 6:23, 52; 8:44; 9:4; 10:8, 16, 29, 39(16회)	1:28; 10:8, 39는 다수 사본 일부

p⁶⁶과 p⁷⁵는 상호 일치보다 불일치 비율이 더 높다. p⁶⁶과 p⁷⁵는 ⚡보다 B에 더 일치한다. 따라서 B는 ⚡보다 파피루스를 더 충실히 따른다. p⁶⁶과 p⁷⁵가 다수 사본과 일치하는 비율은 불일치하는 비율과 같다. 따라서 다수 사본은 파피루스를 따르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가 다수 사본에

일치하는 비율보다 B가 다수 사본에 일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다. 따라서 다수 사본은 κ 보다 B를 더 따른다. 하지만 κ 와 B는 다수 사본과 불일치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이다. 그러므로 다수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대문자 사본(κ 와 B)과 달리 독자적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파피루스들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피루스들을 B가 많이 의존하고, 다수 사본은 B를 상대적으로 더 의존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1-11장의 사본 가운데 파피루스를 더 계승하고 다수 사본에 더 영향을 준 B를 κ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2. 요한복음 사본의 신학적 경향

20개 구절로 사본들의 신학적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다. 요한복음 1-11장의 고등 기독교론은 $p^{66, 75}$ 와 B의 ‘주’(4:1)에서 볼 수 있다(그리고 1:19, 21도 참고). 그리고 요한복음 5:17에서 p^{66} 과 다수 사본은 ‘예수님’을 생략하지 않는다. 그런데 10:29에서 B는 ‘만유’보다 크신 ‘고등 성부론’을 강조하지만(그리고 1:28도 참고), 다른 사본들은 ‘만유’보다 범위가 좁은 ‘만인’보다 크시다고 표기한다.

요한복음 9:4에서 다수 사본은 오직 예수님께서 성부의 보냄을 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나머지 사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으로 돌림으로써 기독교론적 교회론을 강조한다(그리고 1:17도 참고). 그런데 10:16에서 B를 제외한 다른 사본들은 교회의 일치성을 3인칭 단수형으로 표기한다.

요한복음 4:11에서 p^{75} 와 B는 ‘여자’를 생략한다. 하지만 ‘여자’를 생략한다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파피루스 자료를 생산한

AD 3세기 이집트 교회의 신학적 경향과 A와 B를 생산한 4세기 이집트 교회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9세기 이후의 소문자 사본을 대량으로 생산한 비잔틴교회의 교회의 일치는 강조하되, 예수님을 이어 받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오면서

요한복음 1-11장의 본문 비평을 통해서, 대문자 사본 B(03)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등 기독론, 고등 성부론, 교회의 일치, 그리고 기독론적 교회의 사명 수행을 사본 별로 각기 강조함을 추론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송영목. 『간본문적 신약읽기』. 서울: CLC, 2017.

_____.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 『신약연구』 14/3 (2013): 517-46.

_____. 『다차원적 신약읽기』. 서울: CLC, 2018.

이환봉. 『성경에 이르는 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2.

Botha, J. E.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is Dead!: Long live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HTS Teologiese Studies* 63/2 (2007): 561-73.

Bruner, F. D.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12.

Caragounis, C. C. “Jesus, His Brothers and the Journey to the Feast (John 7:8-10).”

- Svensk Exegetisk Årsbok* 63 (1998): 177-87.
- Du Rand, J. A. *Johannine Perspectives: Introduction to the Johannine Writings-Part I*. 3rd Edition. Johannesburg: Orion, 1997.
- Grassi, J. A. "The Role of Jesus' Mother in John's Gospel: A Reappraisal." *CBQ* 48/1 (1986): 67-80.
- Harris, M. J. *John*. EGGNT. Nashville: B&H Academic, 2015.
- Hunn, D. "The Believers Jesus doubted: John 2:23-25." *Trinity Journal* 25 (2004): 15-25.
- Kim, J. K. "A Korean Feminist Reading of John 4:1-42." *Semeia* 78 (1997): 109-119.
- Klink III, E. W. *John*.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6.
- Köstenberger, A. J. 『요한복음』. *John*. 신지철, 전광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7.
- Kysar, R. D. "Johannine Metaphor-Meaning and Function: A Literary Case Study of John 10:1-8." *Semeia* 53 (1991): 81-111.
- Metzger, B. M. 『신약 그리스어 본문 주석. 제 2판』.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장동수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2005.
- Moloney, F. J. *The Gospel of John*. Sacra Pagina.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8.
- Theiss, N. C. "John 1:6-8, 19-28." *Interpretation* 50/4 (1996): 402-405.
- Thompson, R. "Healing at the Pool of Bethesda: A Challenge to Asclepius?"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27/1 (2017): 65-84.
- Van der Merwe, D. G. "The Significance of John the Baptist in John 1." *Neotestamentica* 33/2 (1999): 267-92.